

위대한 정치: 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책세상, 2017)

서병훈 (송실대학교)

1. 왜 밀과 토크빌인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과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근대 자유주의의 기틀을 닦은 사상가들이다. 《자유론 *On Liberty*》과 《미국의 민주주의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같은 위대한 저술로 후세에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 역정도 만만치 않다. 밀은 젊어서 사회 개혁 운동에 열심을 내었고 인생 후반부에는 하원 의원으로 활약했다. 토크빌의 공생애는 전부 정치로 점철되었다. 그는 하원 의원에 장관까지 지냈다. 밀과 토크빌은 “옳은 것을 알고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적은 없는지 항상 걱정”(《논어》, 〈술이〉)하는 지식인의 전형에 가까웠다.¹⁾

나는 밀과 토크빌이 생각과 행동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 했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한다. 두 사람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 고결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순치(馴致)하는 문제의식을 같이 나누었다. 밀은 일생 동안 진보적 자유주의(advanced liberalism)의 구현에 앞장섰다. 인간의 진보를 꾀대 삼아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가 쓴 책과 논설은 거의 모두 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구축과 확장을 겨냥했다. 토크빌은 자신을 새로운 자유주의자(libéral d'une espèce nouvelle)라고 불렀다. 그는 물질적 탐닉과 소시민적 안락을 부추기는 당시의 자유주의자와 자신을 분명하게 구분했다. 토크빌의 주요 저작 역시 이 새로운 자유주의의 토대를 확립하고 그 이념을 현실에 투영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념을 꽃피울 정치의 형상화에도 진력했다. 밀은 급진 개혁 운동을 주도하면서 ‘도덕 정치’를 열망했다. 토크빌은 줄기차게 ‘위대한 정치’를 외쳤다. 위대함이라는 개념은 그의 새로운 자유주의의 중추가 된다. 그들은 도덕 정치와 위대한 정치의 이론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 들었다. 이념의 이름으로 하원 의원 선거에 나섰고 이상의 실천을 위해 의사당에서 사자후를 토했다. 불세출의

1) 이름 높은 사상가 중에서 밀과 토크빌만큼 의미있는 정치경력을 쌓은 사람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Dennis Thompson, “Mill in Parliament: When Should a Philosopher Compromise?”, Nadia Urbinati and Alex Zakaras, eds. *J. S. Mill's Political Thought: A Bicentennial Re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66~167쪽 참조.

두 사상가가 정치 현장에 뛰어들었다. 펜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대중을 상대로 직접 위대한 정치를 실천하려 했다. 시대의 아픔을 정치 참여로 갚아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정치 참여의 결과는 어땠던가?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밀과 토크빌의 정치 참여는 역사의 흐름에서 작은 이야깃거리에 불과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정치 생활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회한에 잠겼다. 지식인은 역시 글을 써서 역사에 보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해주었다. 사회에 진 빛을 갚되 '강단'에 충실하라고 했다. 그것이 지식인의 숙명에 부합한다고 했다. '참여 지식인' 밀과 토크빌이 하는 말이다.

2. 문제의식

이 책은 두 가지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출발했다. 첫째, 나는 밀과 토크빌의 삶, 특히 인생행로를 깊이 알고 싶었다. 나는 줄곧 밀의 사상을 공부하고 글을 썼다. 책도 여러 권 냈다. 10여 년 전부터는 토크빌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파악하자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상가의 개인적인 일상사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나는 2011년 여름에 프랑스 아비뇽에 있는 밀의 무덤을 찾아갔고, 이어 그해 겨울에 토크빌의 안식처도 다녀왔다. 두 사람의 무덤을 쓰다듬으며 묘한 '동일시'를 느꼈다.²⁾ 그 이후로 밀과 토크빌의 평전을 열심히 읽으며 그들의 내면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 밀과 토크빌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화두를 놓고 의미심장한 공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람의 사적인 삶도 그렇다. 사소한 차이점을 견어내고 나면 한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간 두 거장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념을 앞에 두고 몸이 따라가는 모습은 존경스럽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밀과 토크빌의 삶은 그들의 사상과 혼연일체가 되어 빛이 났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밀과 토크빌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좀 더 명료하게 보여주는 책을 준비하게 되었다.

둘째,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스 베버의 경고는 아무리 귀담아들어도 부족하다. 한 길을 깊이 파고들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융합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군림하고 '르네상스형 지식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베버의 생각은 달랐다. 엄격한 전문화가 아니면 "진실로 아주 탁월한 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했다.³⁾

2) "프로이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과정을 '감정적 유대'라고 불렀다. 감정적 유대란 남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과 겹치는 신비한 경험을 뜻한다." 이 '감정적 유대'의 다른 말이 '동일시'이다. 김서영, 《프로이트의 편지: 새로운 삶을 위한 동일시 이야기》(아카넷, 2017), 7-10쪽.

나도 베버와 같은 생각이다. 한 우물을 깊이 판 뒤, 그리고도 여력이 있으면 눈을 옆으로 돌려도 좋다. 뿌리를 내릴 학문적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박학과 융합부터 기웃거리면 그것은 전문가의 길이 아니다. 선진 외국에서 학문을 수입해서 연명하는 한국 지식 사회의 실상은 더더욱 전문가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학문 세계에서 ‘아마추어’를 자랑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처지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교수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비교적 그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베버의 경구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일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학문의 길과도 부합될 수 없는 일이다. 소크라테스의 부담, 플라톤의 분노가 내 가슴에도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학문의 길과 지식인의 길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베버의 충고를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빛은 뒤로 밀리게 된다. 플라톤의 분노만 쫓아다니면 또 다른 사이비가 될 수 있다. 나는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두 곳에서 똑같이 아픔을 느꼈다. 지식인의 존재론적 번민이라고나 할까.⁴⁾ 그런 까닭에 밀과 토크빌의 인생 행적이 흥미로웠다. 글과 정치, 두 선택지를 앞에 놓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궁금했다.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의 역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유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학문의 길과 지식인의 길을 가로지르는 교차점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밀과 토크빌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각 단원마다 두 사람의 생각과 행적을 내 시각에서 비교, 분석하는 글을 실었다. 1부는 둘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어 2부는 두 사상가의 성장 과정, 대표작에 대한 소개, 그들의 글 쓰는 방식을 정리한다. 이 책의 목적이 글과 행동 사이의 황금 접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상가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다. 3부는 밀과 토크빌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다가 하루아침에 소원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한다. 4부는 5부의 머리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밀과 토크빌의 정치 활동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그들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을 비교, 분석한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 토크빌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지향했다. 둘은 이런 이념의 쏠대를 ‘위대한 정치’를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 4부는 이 관점에서 그들의 정치 이론을 검토한다. 5부는 이 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밀과 토크빌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그 후의 정치 생활, 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 글쓰기와 정치 참여 사이의 저울질에 대한 두 사람의 최종적인 진술이 5부를 구성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밀과 토크빌의 인생 여정을 통해 이 시대 지식인이 무엇을 새겨야 할지 내 생각을 적어본다.

3) 막스 베버,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 : 학문, 종교, 정치》, 전성우 옮김(나남, 2002), 39쪽.

4) 학문적 열정과 실천적 관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임현진,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나남, 2015), 11-12쪽 참조.

3. 삶

밀과 토크빌은 그들 나이 서른 즈음인 1835년에 처음 만났다. 토크빌이 한 살 위였다.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이미 명성이 대단했던 밀과 토크빌이었다. 그들은 양국의 정세를 비롯해서 민주주의, 학문하는 방법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우정의 끝은 다소 씩씩하다. 삶도 그렇다.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의 차이만큼이나 그들의 인생행로는 차이가 난다.

토크빌이 명문세가의 후손이라면 밀은 가난한 문필가의 장남이었다. 살아온 환경 탓인지, 토크빌이 흘러간 귀족 체제를 그리워한 반면, 밀은 노동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큰 관심을 가졌다. 두 사람이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달랐다. 삶의 태도도 달랐다. 밀이 진중했다면 토크빌은 예민했다. 밀이 말 한마디, 걸음 하나 하나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토크빌은 타고난 재능을 발산하며 춤추듯 살았다.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더 많아진다. 밀은 한 여인을 만나 통속을 거부하며 뜨겁게 사랑했다. 반면 토크빌은 걱정애 몸을 맡겼고 그만큼 우여곡절이 있었다.

밀은 정규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가르침만 받고 컸다. 그런데 그 공부도 보통 공부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헌신했다.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종교관까지 아들은 아버지 판박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들은 아버지의 성에서 탈출해 나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게 된다. 아들은 그 '반역'조차 아버지가 준 가르침의 결과인 것을 알고 있었다.

토크빌은 집안 가정교사 밑에서 자랐다. 늙은 신부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다. 토크빌의 독특한 종교관은 아마 그 신부에게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아버지는 토크빌의 마음을 단련시켜주었다. 특히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윤리적 당위를 몸소 보여주었다. 밀과 토크빌 둘 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둡다. 밀은 어머니에 거리를 두었고, 토크빌은 심약한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고뇌하는 삶을 살았다.

밀과 토크빌의 삶에서 아내들이 차지하는 무게는 사뭇 달랐다. 밀은 지나칠 정도로 아내 해리엇(Harriet Taylor)을 떠받들었다. “내 생애의 영광이며 으뜸가는 축복, 나보다 더 뛰어난 사상가, 아버지 제임스 밀만큼이나 자유와 진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여성”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해리엇을 칭송했다. 해리엇이 밀의 글을 세심하게 읽고 조언을 해준 것은 사실이다. 사회주의, 여성 운동, 종교 문제 등에 해리엇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해리엇의 지적 수준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많다. 그뿐만 아니다. 해리엇의 전남편을 밀과 해리엇 두 사람의 관계를 돋보이게 하는 조언 정도로 치부해도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자유’의 기본 원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밀은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해리엇이 관련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친구들을 멀리했고, 결정적으로 가족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그가 아비뇽에 있는 해리엇의

무덤에 정성을 쏟은 것도 정도가 지나쳤다. 밀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판단에 맞서기라도 하듯 해리엇을 정도 이상으로 떠받들었다.

토크빌 부부도 꽤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성적(性的)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던’ 토크빌이 마리(Marie)를 만나 정을 나눈 계기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주는 사람도 있다. 토크빌은 나이가 한참 위인 마리에게서 안식을 구했던 것 같다. 마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기대에 잘 부응했다. 토크빌 스스로도 그녀의 헌신적 내조를 고마워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파란이 많았다. 둘의 성격이 너무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토크빌의 ‘일탈’로 인한 파열음도 심각했다. 밀이 해리엇을 이상처럼 ‘숭앙’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토크빌은 마리의 “뛰어난 통찰력과 강인한 정신, 고상한 성품”에 찬사를 보냈지만 과연 그녀가 토크빌의 반려자로 걸맞았는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꽤 있다. 무엇보다 밀의 글쓰기 작업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해리엇에 버금가는 역할을 마리에게서는 찾기 어렵다. 칸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에도 마리는 토크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토크빌의 병세가 위중한 상태로 치달을 때 마리 역시 몸이 안 좋았다. 결과적으로 토크빌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마리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

밀과 토크빌 모두 ‘아버지의 서재’에서 삶의 큰 길을 만났다. 밀은 세 살 이후 아버지와 책상에 마주 앉아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아는 밀은 그 책상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밀은 스무 살 때 ‘청춘의 위기’를 겪으며 아버지의 서재를 떠나게 된다. 토크빌의 생애를 결정적으로 규정한 ‘젊은 날의 위기’도 아버지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토크빌은 열여섯 살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책 저 책 손에 닿는 대로 읽어가면서 ‘보편적 의심’에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신앙을 멀리하게 되었고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다. 그때 생긴 우울이 평생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 고통에 비례해서 그의 지적 감수성도 한층 예민해졌다.

시대 탓이기도 하겠지만 밀과 토크빌은 똑같이 자연을 사랑했다. 밀은 십대 이래 산악미에 빠져들었다. 그의 식물 채집은 높은 경지에 올랐다. 그가 열일곱 살 아래인 곤충학자 파브르와 나눈 우정도 무척 아름답다. 밀이 산을 사랑했다면 토크빌은 바다를 좋아했다. 그는 10대 후반에 “세상 모든 장관 중에서 어린 시절 나에게 가장 큰 영감과 감동을 주었던 것은 바로 바다 풍경이었다”고 회상했다. 토크빌은 나이 들어서 ‘나무 심고 씨 뿌리는 재미’에 빠졌다. 그는 향리 토크빌에서 ‘저술가 겸 농부’ 생활을 즐겼다.

문제는 건강이었다. 둘 다 건강이 시원찮았다. 밀은 1854년 3월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 여명(餘命)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변 정리를 서둘렀다. 그러나 시골에서 요양한 효험이 있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 후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식물 채집을 하면서 많이 걸어 다닌 것이 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밀의 마지막 날은 불현듯, 그러나 아름답게 찾아왔다. 산속을 15마일이나 기분 좋게 걸어 다닌 뒤 갑자기 병이 났다. 그는 딱 3일 앓고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는 말도 남길 수 있었다. 밀은 아비농의 해리엇

옆에 안치되었다. 67세 때였다.

밀에 비하면 토크빌의 끝은 다소 서글펐다. 토크빌은 1850년에 이어 1858년 6월에 다시 각혈을 했다.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부랴부랴 따뜻한 남쪽 지방을 찾아 나섰으나 불운하게도 악천후가 그를 괴롭혔다. 칸에 자리를 잡았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토크빌은 나아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외로움에 친구들을 부르는 장면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토크빌은 만 54세도 안 된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칸을 떠나 오랜 여정 끝에 토크빌에 안치되었다.

두 사람의 종교관도 비교해볼 만하다. 밀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숫제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무신론을 개진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는 전통적인 인격적 신 관념을 부정했다. 그 대신에 기적이나 계시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신론(理神論, deism)에 우호적이었다. 해리엇은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유니테리언(Unitarian) 교회에 다녔는데 이 점에서도 두 사람은 생각의 공통분모가 컸다. 밀은 종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도덕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종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초자연성을 뺀 인성 종교(Religion of Humanity)를 머리 안에 그렸다.

토크빌은 가톨릭 신앙 속에서 자랐지만 사춘기 이후 종교를 멀리했다. 그는 예수를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으로 추앙하는 교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런 토크빌도 신의 존재와 섭리,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었다. 따라서 토크빌의 생각은 무신론보다 이신론에 가까웠다. 개인의 사적인 덕목보다 사회적 의무를 더 중시하는 유니테리언파의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것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밀과 닮았다. 밀이 종교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듯이 토크빌 역시 종교의 영향에 대해 깊숙이 언급했다. 그가 종교의 윤리적 역할을 강조하고 민주 정부의 존립을 위해서는 '종교적 믿음'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의 삶은 한마디로 경건한 수사(修士)를 닮았다.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었던 듯하다. 그는 언제나 삶의 깊은 곳을 진지하게 응시했다. 그렇기에 19년 동안 해리엇과 사귀면서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에도 믿음이 간다.

그에 비하면 토크빌은 한결 인간적이다. 친근감마저 든다. 토크빌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젊은 시절 한때 '질풍노도'를 마다하지 않았고, 나이 들어서도 명예에 대한 욕심을 지우지 못했다. 밀이 신선처럼 즐기다 죽음을 맞았다면 토크빌의 죽음은 중환자실에서 주삿바늘을 주렁주렁 단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중생의 모습을 닮았다. 그런 토크빌이지만 원칙에는 단호했다. 혁명군 앞에서 '반혁명'을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 토크빌이었다. 밀도 그랬다. 뜻에 관한 한 양보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용감한 사람이었다.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의 삶이었다.

4. 글

밀은 아버지로부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경계했다. 양쪽을 살피면서 새로운 것이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는 공부하는 열정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싶었다. 그 열정이 그가 내세우는 단 한 가지 자랑거리였다.

밀은 젊어서, 아니 어려서부터 수많은 글을 썼다. 그의 글 쓰는 태도는 여일(如一)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용맹정진 했고, ‘진보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분투했다. 중요한 것은, 밀은 글을 쓸 때 항상 시대의 요구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다. 그는 결코 백면서생이 아니었다. 직관주의가 팽배하던 당대 지성계에 맞서 경험주의를 외쳤고, 신사(紳士)와 부르주아지를 성토했으며 ‘자유사회주의’를 제창했다. 그의 글에는 시대에 대한 그 자신의 답이 들어 있었다.

밀은 분야를 안 가리고 많은 글을 썼다. 그는 청장년 시절의 대부분을 동인도회사의 직원으로 보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밀은 33권의 전집을 채울 정도의 글을 남겼다. 그가 사십대 후반에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절박감에 ‘죽기 살기로’ 글을 썼던 대목은 비감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다.

밀은 글도 성실하게 썼다. 오래 천착하고 숙고한 다음 일필휘지(一筆揮之) 글을 썼다. 그런 다음 그 글을 묵혀두는 과정을 꼭 거쳤다. 그는 몇 년이고 수정과 윤색을 거듭했다. 필요하다 싶으면 출판과 상관없이 그냥 글을 써두기도 했다. 청탁을 받고 마감 시간에 쫓겨야 글을 쓰는 사람은 한숨만 나오는 경지이다.

토크빌은 명문세가의 후손이지만, 그가 특별한 교육을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그는 밀과 대비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생산’되었는지는 미스터리가 가깝다. 토크빌이 십대 중후반의 나이에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책 저 책 가리지 않고 읽은 것, 그리고 이십대 중반에 친구 보몽과 함께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우리가 아는 비밀의 전부이다.

밀에 비하면 토크빌의 저작 목록은 간단하다. 출판된 저서라고 해야 《미국의 민주주의》 1, 2권과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회상록》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소소한 몇 권이 더 있지만 내세울만한 것들은 아니다. 이처럼 토크빌의 저작은 몇 권 안 되는데다 주제도 역사와 정치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토크빌이 유럽 지성을 장악하는 데는 《미국의 민주주의》 한 권으로 충분했다. 대단한 청년 밀이 ‘족탈불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동년배인 토크빌을 추앙한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토크빌은 평등 사회의 재앙을 방지할 생각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다. 그에게는 ‘새로운 정치학’이 지상 과제였다. 동시에 그의 글쓰기 이면에는 출세욕도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정치판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일종의 훈장으로서 책을 쓴 것이 사실이다.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은 이루지 못한 정치의 꿈을 달래기 위한 보상용에

가까웠다.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이 거둔 대성공은 그 뒤 토크빌의 삶에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그는 후속작들의 ‘흥행 부진’에 크게 괴로워했다. 이 점에서도 그는 ‘경건주의자’ 밀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토크빌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할지언정 그를 속물로 하찮게 취급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글을 썼는지 안다면 말이다. 그는 자신의 글이 오랜 각고의 산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편견 없이, 공정하고 진솔하게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고 열정 없이 쓰지는 않았다. 그가 쓴 글들이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론을 거슬렀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토크빌은 “유감스러운 일일망정 후회는 없다”고 단언했다(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5~6, 9쪽).

토크빌은 고통스럽게 글을 썼다. 그는 밀에게 편지를 보내 글쓰기의 고통을 하소연했다. 글자 그대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이었다. 토크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끝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의 대단히 짧은 대목 하나를 쓰기 위해 1년 이상 노력을 기울이고 한 문장을 20번이나 고쳐 쓴 사람이 토크빌이었다. 인도에 관한 책을 쓰려고 오래 준비했다가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자 끝내 단념한 것도 그다운 일이었다.⁵⁾

밀이 체계를 잡고 주도면밀하게 글을 써나갔다면 토크빌은 생각의 흐름에 글을 맡기는 편이었다. 그는 밀에게 말했듯이 “어떤 체계를 정해놓고 쓰지” 않았고, “그저 생각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었다. 단숨에 우아하고 명쾌하게 초고를 쓴 뒤 따로 더 다듬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대표작들은 초고가 완성된 뒤 얼마 안 있어 책으로 나왔다. 토크빌이 다른 사람의 책을 잘 안 읽고 잘 인용하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유념할 만하다.

밀의 글은 힘이 있다. 묵직한 저력이 뒷받침되어 흡인력이 강하다. 《자유론》 같은 책을 읽어보면 거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글은 다소 메마른 느낌을 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건초 씹는 맛’이라고 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밀의 글도 그와 비슷하다. 논리에 치중한 글쓰기라서 그럴 것이다. 그의 영어 원본은 읽기가 쉽지 않다. 19세기 어법에다 법정의 판결문 같은 문체가 섞여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에 비해 토크빌의 글은 명료하고 친근감이 있다. 주제별로 소제목을 달아 짤막짤막하게 나눠 쓰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읽기가 편하다. 길게 죽 써 내려간 밀의 글과 대조된다. 물론 그의 프랑스어도 19세기의 귀적을 담고 있어 난해하다. 거기에도 몇까지 부린 흔적이 있어 외국인이 읽기는 만만치 않다. 토크빌의 글을 읽으면 밀이 기분 나쁘지 않게 꼬집었던 ‘프랑스인 기질’이 떠오른다. 수다스럽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잇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시대의 문제의식을 글에 담아내기 위해 애썼다는 점이다. 밀의 대표작들, 이를테면 《논리학 체계》, 《정치경제학 원리》, 《자유론》, 《대의

5) 밀은 정반대의 이유로 인도를 가지 않았다. 눈으로 보기 보다는 책으로 읽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데 더 유익하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밀과 토크빌이 정반대 입장을 취한 것도 흥미롭다. 성실함이야 밀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니었던가.

정부론》 등은 그가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타개하기 위한 고뇌의 산물이었다. 밀은 철학적으로 응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장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많이 제시했다. 토크빌 역시 누가 보더라도 19세기 프랑스의 지식인이었다. 자기가 살던 시대, 자신의 조국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글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생각, 조국 프랑스의 정치적 난맥상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밀과 토크빌은 분명 참여형 지식인이었다.

토크빌은 엄정하게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종합”했다. “달리 보고 멀리 보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다면성’(many-sidedness)이야말로 밀의 핵심가치였다. 양쪽을 다 보고 편견을 배제하며, 새로 배울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민 사람이 밀이었다. 이 시대 우리가 밀과 토크빌을 흠모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이다.

5. 정치이론

서구 문명의 진전에 반비례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쪼그라들고 있다. 오크숏(Michael Oakshott)의 개념 구분을 따라 말하자면, 정치를 통해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치(politics of faith)”가 뒤로 밀리면서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회의(懷疑)의 정치(politics of scepticism)”가 주류가 된 지 오래이다. 정치를 “사회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으로 규정하는 ‘기술적, 행태론적’ 시각⁶⁾이 정치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도 그런 시류와 무관하지 않다. 개인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 차원으로 정치를 규정하면 그러한 정치 속에는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고뇌가 설 자리는 없다.⁷⁾ 현대 사회는 정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끊임없이 욕하고 저주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 있다는 반증이다.

밀과 토크빌은 “신념의 정치”를 추구한 사상가들이다. 그들은 정치를 존재의 근본과 결부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 자신이 그런 정치의 구현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것도 했다.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두 사람은 매우 닮았다.

밀은 “각자를 최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정치, 즉 인간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불렀다. 그의 공리주의 철학은 자기 발전이 우리 삶의 궁극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좋은 정치”도 공리주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토크빌은 정치를 ‘존재의 아픔’과 연결시켰다. 인간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왔다가 어디론지 모르게 사라지는 우연한 존재”이다. 따라서 외로울 수밖에 없다. 토크빌은 그

6) 미국의 정치학자 이스턴 David Easton (1917 ~ 2014)의 주장이다.

7) 정치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깊숙하게 맞닿아야 한다는 “신념의 정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양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상을 이탈한 ‘정치과잉’이 인간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는 히틀러가 잘 보여준다. 두 차원의 정치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오크숏의 말이 맞다.

런 존재론적 고독을 이기게 해주는 해독제를 정치에서 찾았다. 그는 “위대한 정치”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과 인간 자체에 대해 보다 크고 장대한 생각을 품을 것”을 기대했다. 사람들이 고상하고 항구적인 가치를 향해 뜨겁게 몰두할 것을 촉구했다. 사적 이해관계를 접고 공공선에 헌신하기를 갈망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의사당 안에서 심각하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그가 꿈꾸는 위대한 정치의 본령이었다.

이렇게 보면 밀의 좋은 정치와 토크빌의 위대한 정치는 동일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다. 밀은 인간의 자기발전을 삶의 뜻대로 삼았고 토크빌은 위대함의 구현을 통해 존재의 번민을 털고 싶어 했다. 인간을 크고 윤택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두 사람의 열망은 정치에 대한 기대와 포부로 이어졌다.

이런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밀과 토크빌이 참여의 미학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인간성의 증진”을 진보의 기준으로 삼은 밀은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꿈꾸었다. 참여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고 넓게 만들어주고 지적 수준도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든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자 밀은 동시에 숙련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민주적 지배와 함께 전문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인민이 주권을 가지되, 유능한 지도자의 발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밀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평을 쓰면서 공감했듯이, 토크빌은 정치의 장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할 당위성을 누구보다 먼저 강조한 사상가이다. 토크빌은 참여가 평등 사회의 고질인 물질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즉효약이라고 믿었다. 한마디로 참여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것이 토크빌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크빌은 대중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보통선거권의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혁명과 공화주의를 매우 두려워했다. 평등 시대의 도래에 대해 본능적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도 두 사람은 유사하다. 밀이 토크빌의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밀이 정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대중 친화적인 능력”을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밀은 그 능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요령”을 적시했는데, 오늘날의 표현으로 소통을 중시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토크빌도 그랬다. 토크빌은 정치가가 갖춰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올바른 지성과 신념, 조국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덧붙여 “사람들을 한데 묶고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끄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밀의 대표작인 《자유론》과 《대의정부론》에서는 토크빌의 체취가 물씬 풍긴다. 다수의 횡포에 대한 두려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등은 그대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토크빌을 밀의 선생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밀과 토크빌의 관계, 특히 그들의 사상적 주고받음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⁸⁾

8) 밀과 토크빌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놓고 생각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병훈, <민주주의 : 밀과 토크빌>, 《한국정치연구》 24권 1호(2015) 및 <자유 : 밀과 토크빌>, 《정치사상연구》 21권 2호(2015) 참조.

6. 정치활동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외치며 도덕 정치를 주장했다. 토크빌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위대한 정치를 꿈꾸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담아 역사에 남을 명작들을 썼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이론 작업에 빚지고 있다. 밀과 토크빌은 그에 그치지 않고 정치 현장에 몸을 던지기도 했다. 둘 다 하원 의원을 지냈는데, 특히 토크빌의 정치 이력이 화려하다. 인상적인 것은, 정치 무대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그들의 평소 생활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의 정치 활동은 그들이 추구한 정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리 인상적이지 못하다. 밀은 3년, 토크빌은 13년 동안 정치 세계에서 분투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활약을 주목하지 않았다. 두 사상가의 명성, 특히 그들의 저작이 드리운 빛에 비하면 정치 세계에서 그들은 초라하기까지 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정치를 했고, 왜 그 이름에 걸맞은 정치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까? 글과 정치 사이에서 고뇌는 없었을까? 이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밀과 토크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열여섯 살 소년 토크빌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마구 지식을 흡수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인생의 폭풍기였다. 그때 잉태된 존재론적 아픔이 평생 그를 괴롭혔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토크빌이 탄생할 수 있었다. 밀은 그 나이에 벤담을 읽었고, ‘나이에 맞지 않게’ 언론에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열여섯의 밀은 또한 정치를 꿈꾸었다. 뛰어난 웅변 실력을 갖춘 ‘지롱드’ 의원이 되고 싶었다. 과연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정치 운동에 관여했다. 그가 보기에는 아버지야말로 난국을 헤쳐 나갈 최적의 정치가이었다. 밀은 아버지를 닮고 싶었다. 적어도 젊은 시절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크게 고민한 것 같지 않다. 그는 동인도회사에 몸담고 있어 하원 의원 출마를 생각할 수 없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글을 쓰고 전략을 짜고 현역 정치가들을 ‘지도’했다. 그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사당이라는 정치 무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급진주의 개혁 운동이 스러진 뒤 밀은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떠나 있었다. 직장 일과 개인적인 집필 활동에 전념했다. 그가 해리엇을 만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면서 정치는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물론 그는 사회를 개선, 진보시키기 위한 글은 끊임없이 썼다. 자신의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로 일을 등한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1865년에 밀은 의회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봤다. 아무래도 정치보다는 그냥 계속 글을 쓰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잘 봉사하는 길일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지역 유권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마를 결행했다. 그의 《자서전》에는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가 어떻게 인생길의 전회(轉回)를 결심

하게 됐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막연하지만, 동료 시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사회에 빛진 자로서 사회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이 그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제1변수였던 것 같다.

밀은 3년간 하원 의원 생활을 한 뒤 정치가 자신의 성미와 기질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에게는 아비뇽에서 플라톤을 읽는 것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내세웠던 정치가의 조건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다.

밀에 비해 토크빌은 정치 투신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우선 집안 분위기가 그랬다. 유럽의 귀족 가문은 대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소중히 여겼다.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자의식은 곧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토크빌도 소년 시절 이래 줄곧 '정치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는 법률 학교를 졸업하고 일시적으로 관리의 길을 걸었지만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별다른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다소 단선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일차적 이유도 명성을 얻어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 토크빌은 존재론적 번민을 털어버리는 데 위대한 영웅적 활동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정치 세계로 나서는 것은 그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10여 년에 걸친 정치 생활 동안 토크빌에게는 좌절감이 쌓여갔다. 그는 청년 좌파를 결성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새로운 자유주의를 구현하고 싶었지만 그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신에게 과연 정치가의 자질이 있는지 회의가 커졌다. 이렇게 된 데는 환경이 그를 외면한 탓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토크빌 본인의 성격과 기질에 있었다. 결벽증이 있는데다 소심하기까지 한 그의 성격으로는 의사당에서 큰 뜻을 펼 수가 없었다. 결국 토크빌은 정치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에야 문필가의 길이 자신이 택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밀과 토크빌 두 사람 다 의사당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 토크빌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이념의 뜻대로 삼고 분투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두 사람 다 위대한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세상과의 타협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밀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했음은 물론이고 동료들의 질타도 개의치 않았다. 이 점에서는 토크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정적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혔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혁명군 앞에서 반혁명을 외치는 강골도 보였다. 두 사람이 유세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는 아닌 듯싶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밀과 토크빌은 그렇게 했다. 유권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그 진심을 받아주었다.

하원에 들어간 밀은 작은 일에서도 고지식할 정도로 현실 타협을 거부했다. 지역 주민들의 청탁을 거절한 것이 그랬다. 토크빌도 원칙을 지키되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그러지 않고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

7. 지식인의 책무

나는 밀과 토크빌의 생애에 관해 가능하면 많이 알고 싶은 욕심에서 이 책을 준비했다. 오랜 세월 자료를 뒤져 조사하면서 드는 소회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행복한 포만감’이다. 밀과 토크빌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덕망가(德望家)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사이비”(《논어》, 양화)라고 했는데, 밀과 토크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위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시류에 영합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인생의 선배로 둔다는 것은 작은 축복이 아니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밀과 토크빌의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다. 오래 전 일이지만, 나는 영화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이 추운 겨울 새벽에 언 손을 붙여가며 한 자 한 자 시를 써 나가는 장면을 잊지 못한다. 밀과 토크빌이 그랬다. 두 사람이 공부하고 글을 쓰는 모습은 숙연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자유의 미학을 수호하기 위해, 인간 본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글을 썼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불태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었다.

밀과 토크빌은 글 쓰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밀은 젊어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관여했고, 60 나이에 하원에도 들어갔다. 토크빌은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정치 현장에서 보냈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크빌은 위대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소명에 몸을 던졌다. 말하자면 밀과 토크빌은 ‘참여 지식인’이었다. 두 사람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진지하게 의정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들의 문필가로서의 명성과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 다 행동보다는 글이 더 자신들에게 맞는 천업이라고 정리했다. 나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밀과 토크빌의 정치 경험에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밀과 토크빌은 지성, 오늘날로 치면 비전을 갖춘 지식인들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영달과 세속적인 영화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많은 것을 갖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성과 헌신만으로는 그들이 소망했던 도덕정치와 위대한 정치를 구현할 수 없었다. 대중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지각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첫째, 두 사람 다 ‘권력 의지’가 약했다.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베버가 말한 “그럼에도”의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 입문의 포부를 실현할 수가 없다. 밀은 ‘아니면 말고’ 식이었고 토크빌은 너무 도도했다. 그런 태도는 지식인

에게는 큰 덕목일 수 있지만 직업 정치가에게는 걸맞지 않다.

둘째, 대중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밀이 말한 “대중 친화적 능력” 또는 토크빌이 말한 “사람을 끌어 모으는 능력”은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 두 사람 다 그 점에서 결격이었다. 이것은 현대의 지식인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이야기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지식인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밀과 토크빌의 성격에 가깝다. ‘대중 친화적’이면서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일 것이다.

셋째,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대중과 보폭을 맞추기가 힘들다. 정치가는 대중을 이끌되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아야 한다. 지식인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 지식인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 신념이 과하면 정치에 독이 되기 때문이다. 베버가 경고한 것처럼, 자기만의 신념 윤리⁹⁾에 갇혀 있으면 대중과 손잡고 함께 행진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은 옳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면 대중과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독선으로 치닫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꿈꾸었지만 그 신념이 너무 강고한 나머지 동료 의원들과도 틈이 벌어졌다. 토크빌은 위대한 정치를 펼치고 싶었지만 그의 생각과 기질이 주변 사람들마저 질리게 했다.

지식인이라고 다 밀이나 토크빌의 한계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 출신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정치가가 드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자는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 14년 동안 열국을 주유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낙향하고 말았다. 플라톤도 환갑이 지난 나이에 시칠리아를 두 차례나 찾아가 철인왕의 꿈을 실현해보려 했으나 봉변만 당했다.¹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사회에 대한 빛의 무거움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소리小利를 탐하면서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실 참여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격이 모자라는 지식인의 선부른 행동은 오히려 누가 될 뿐이다. 밀과 토크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글 속에 시대와 국가의 문제 의식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지식인이 자유인의 도리를 다하는 최선의 길인 듯하다. 또는 플라톤이 말했듯이,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큰 기여이다.¹¹⁾

9) 막스베버는 행위자가 신념에 도취된 나머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잘 못 되었을 때 자신의 책임은 간과한 채 남의 탓만 하는 것을 신념 윤리라고 불렀다. 그 반대로 행위자가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것은 책임윤리라고 한다. 베버는 정치적 행위는 책임 윤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했다(베버, 346-347, 357쪽).

10) 토크빌은 글과 정치적 수완 둘 다 뛰어난 사람으로 기조를 꼽았지만 그 기조를 ‘나쁜 정치인’으로 혹평했다.

11) 플라톤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의의 지름길이라고 했다(《국가》, 433a).